

2021년 12월 시앰립 선교 편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조국과 고향에 계신 선교 동역자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지난 3년 가운데 2년 가까운 시간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 예배와 선교활동에 제한이 많이 있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역사, 하나님의 선교는 멈춤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와 한국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22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든든히 서 가는 주의 몸 된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4/4분기는 한국에 출타하기 위해 준비하고 한국을 다녀오는 일정들로 채워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고국을 방문하는 일도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백신접종, PCR음성확인, 자가격리 또는 강제격리, 비자갱신 등 여러 가지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정되었던 주후원교회(안동교회) 9월 선교보고 일정이 무산되고 난 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비자만료로 인해 갱신을 해야 하는데, 6월에 넣은 비자서류가 11월 출국 때까지 아직도 완료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캄보디아 행정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맞지만, 코로나 상황에 정부 부처의 업무중단 등의 일들로 인해 기다림의 시간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11월 14일에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그 날 공항가는 길에 캄보디아 훈센총리의 발표 가운데, 15일부터 완전무격리로 전환할 것을 공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요. 한국을 잘 다녀오라는 인사라고 받았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5개월의 비자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원하는 비자는 나오지 못했지만, 흥해 앞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뒤가 막히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셨던 기적을 기대했지만, 그 보다 높은 길, 새로운 길 하늘 길을 여시고 '임마누엘의 은혜, 동행하심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음에 너무 큰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과정이 마쳐지고 무사히 캄보디아로 복귀하여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모든 과정이 축복과 은혜 그리고 승리의 과정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확신케 하셨고,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희 가정은 선교3년차로서 만 3년 정도의 시간을 캄보디아에서 지내면서, 이제 조금이나마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감각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순종의 삶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더욱 힘을 내서 현장에서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과 사역을 돌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동역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 어린자녀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막내 하민이까지 언니 오빠가 다니는 학교에 Preschool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현지에 잘 적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2021.12.31.(금) 송구영신예배를 앞둔 오후
인도차이나 소망의 땅 캄보디아에서,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임창무 정윤영 하은 하람 하민 선교사가족 올림

<선교 기도제목>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5:16)

1. 순종의 훈련(묵상, 성경통독)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선교사역 되기를
2.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며 나와 같은 한 명의 목사, 선교사가 양육되도록
3. 선교3년차로서 저희 부부와 자녀들(하은, 하람, 하민) 모두 영육 간에 강건하며, 현지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언어의 진보를 주소서
4. 후원교회(안동교회 외)와 시엠립한인장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 다음세대 지도자 양육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5. 어린이 교육사역 및 돌봄사역의 방향과 구체적인 준비되도록..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MK스쿨, 다문화가정예배 등의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것(동역자, 재정)이 준비되도록
6.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과 현지유치원, 초등학교 적응과 배움이 잘 되어 가도록
7. 토지주인과의 원만한 관계와 재계약문제, 현지인어린이예배 지속문제가 잘 해결 되도록
8. 동역자들을 보내주소서. 현지인사역자, 단기선교사와 견습선교사, 교사(현지인, 한인) 등
9. 첫째와 둘째 뿐 아니라 막내 하민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생활 하도록
10. 일반비자갱신이 잘 되고, NGO비자가 추후에 연결될 수 있기를

<교회소개>

현재 섬기고 있는 **시엠립한인장로교회**는 캄보디아 시엠립 시내에 소재한 한인장로교회로서 지역복음화, 세계선교, 다음세대지도자양육을 주된 목표로 하여 한국교민들과 선교사네트워크를 통해 캄보디아 2세대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 표 어 :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엡 4:3, 요17:21)
- 목 표 : 1. 은혜가 충만한 예배 2. 진리로 배우는 교육 3. 사랑이 넘치는 교제
4. 순종으로 행하는 선교 5.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

<현재 및 향후사역>

- 1) 한인예배 2) 현지인어린이예배 3) 지역아동센터(공부방) 4) 한글교육 5) 성경통독
- 6) NGO사역 7) 신학선교세미나 8) 어린이도서관 9) 다문화예배 및 모자시설

<연락처>

- 1) 한국: 임창무 010-9613-1251
- 2) e-mail&SNS: lcm4247@hanmail.net / 카톡ID lcm4247 (임창무)
카톡채널 https://pf.kakao.com/_pxawtj (시엠립한인장로교회)
- 3) 전화번호: (한국) 070-7574-3240 / (855) 087-751-024. (855) 077-709-430
- 4) 주소: No. 212 Sala Kanseng Village, Svay dangkum Commune, Siem Reap, Cambodia
- 5) 우체국사서함: P.O.Box 93149 Siem Reap Angkor Cambodia

*카카오채널로 선교편지와 선교지소식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시엠립한인장로교회**'를 친구로 추가해 주세요.

예) 카카오톡>검색>'**시엠립한인장로교회**' 검색>채널추가>소식받기 설정

